소비자는 분통 터진다!
대형마트 영업규제편

'시장이든 마트든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Consumer Watch

이 책은 소비자 후원금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책 제작을 위해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간사

소비자는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달에 두 번 그리고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그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여기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 10명의 사연을 모았습니다.

애기 업고 마트에 갔다 낭패를 보고 돌아와야 했던 엄마들의 사연, 이사 한 날 마트가 문을 닫아 집안정리를 일주일 동안 미뤄둬야 했던 직장인의 사연,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장을 보러가야 하는 쌍둥이 아빠의 고충, 마트가 문을 늦게 열어 아침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회사원의 호소 등 우리는 참 다양한 이유로 대형마트를 찾고, 또 그날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사정을 무시합니다.

대형마트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의원님들, 각 지자체 조례로 제정하는 광역·기초의원님들, 소비자의 불편에 귀 기울여 주세요. 국민들은 소비자의 구매할 자유와 선택권을 지켜주는 정치인을 응원합니다.

2014년 11월 컨슈머워치

목차

Ⅰ 소비자 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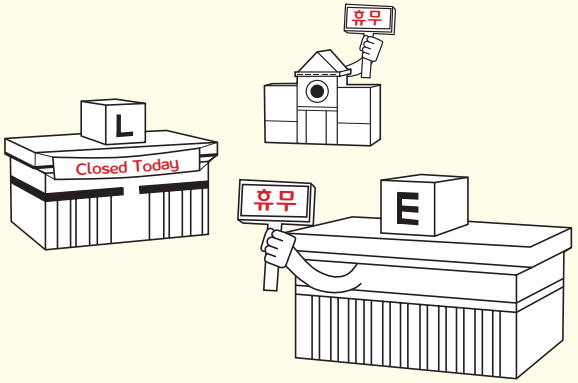
01. 모시조개만 있으면 되는데….
02. 애기 데리고 마트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나요?
03. 나의 일요일 식사를 라면으로 때우며….
04. 이사한 날 마트가 문을 닫으면….
05. 30분이면 끝날 일이….
06. 애기 스틱분유는 전통시장, 동네슈퍼에서 안 팔아요~
07. 스승의 날 선물을 못 샀어요ㅜㅜ
08. 쌍둥이 아빠의 고충
09. 저의 즐거운 아침식사를 돌려주세요~
10. Oh My God! "홈플러스가 망했나?"

Ⅱ 통계로 보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01. 전통시장 매출 5년 째 '뚝'
02.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협력업체 매출 감소
03. 성장 멈춘 대형마트
04.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05. 대형마트와 소비자 물가

Ⅲ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01. 프랑스, 109년 만에 일요일 영업 허용
02. 갈수록 강해지는 대한민국 영업규제



1 소비자 사연

01. 모시조개만 있으면 되는데….
02. 애기 데리고 마트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나요?
03. 나의 일요일 식사를 라면으로 때우며….
04. 이사한 날 마트가 문을 닫으면….
05. 30분이면 끝날 일이….
06. 애기 스틱분유는 전통시장, 동네슈퍼에서 안 팔아요~
07. 스승의 날 선물을 못 샀어요ㅜㅜ
08. 쌍둥이 아빠의 고충
09. 저의 즐거운 아침식사를 돌려주세요~
10. Oh My God! "홈플러스가 망했나?"

사연 1

모시조개만 있으면 되는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두 백석동 **이 * 홍**

한동안 외국에 나가있다 들어와서, 오랜만에 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평소 제가 즐겨 하는 봉골레 스파게티를 만들어달라더군요. 다른 재료는 집에 다 있어, 신선한 모시조개만 사오면 되기에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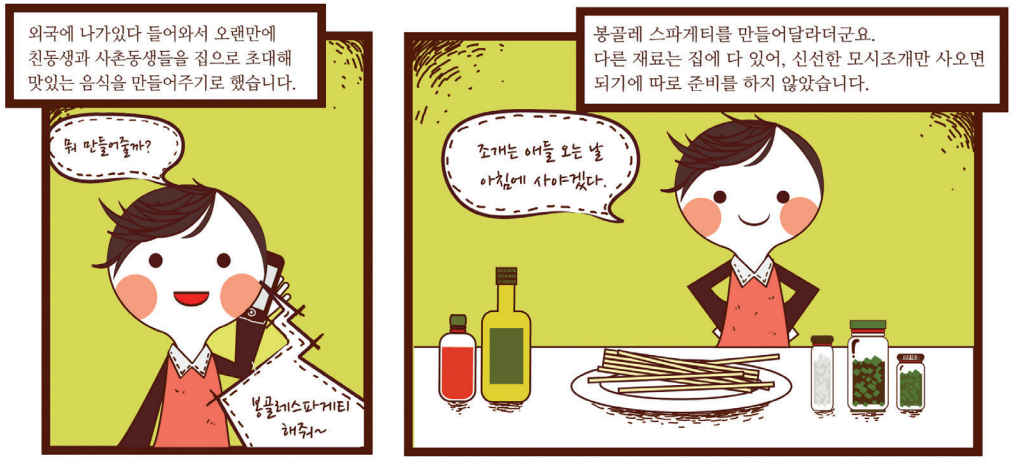
그리고 당일, 고양시는 매달 1일, 15일에 모든 마트가 문을 닫습니다. 늘 주지하고 살지만 한동안 장을 못 봐서 그런지 깜빡 잊은 겁니다. 마트(백석동 홈플러스) 앞에 가서야 문을 닫은걸 알았습니다. 급히 동네 슈퍼마켓을 다 뒤졌지만 구할 수 없었죠. 하긴 현실적으로, 조개를 파는 슈퍼마켓이 어디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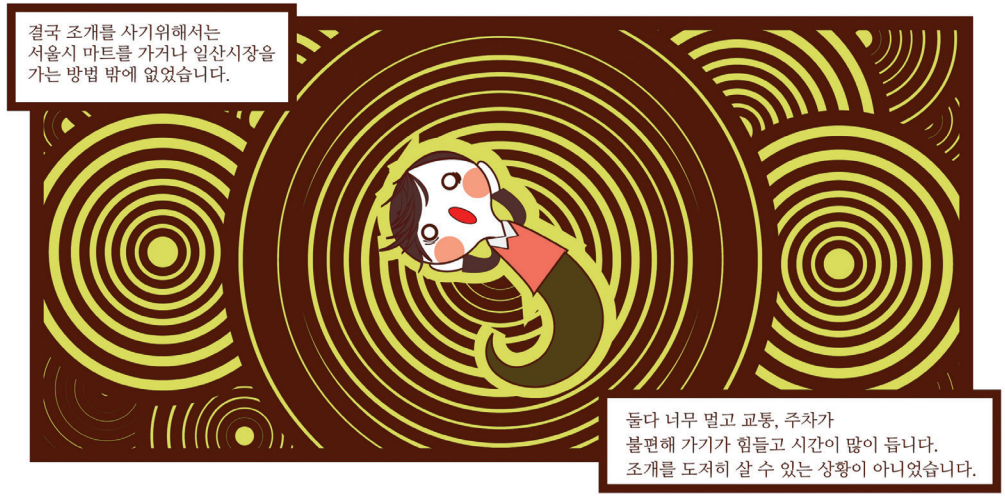
결국 조개를 사기위해 서울시 안에 있는 마트를 가거나 일산시장으로 가야하는데, 둘 다 너무 먼데다 시장은 예전에 몇 번이나 가봤지만 차댈 곳이 없습니다. 입구 앞에 불법주차로 대충 대놨던 적도 있지만 그마저도 앞에 차가 많을 때는 선택사항이 아니죠. 일산시장은 비교적 외진 곳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너무 돌아가기 때문에 역시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피자나 한판 시켜주고 치웠습니다.

사연1 '모시조개' 만 있으면 되는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두 백석동 이*홍)

삽화 by 서혜지





사연 2

애기 데리고 마트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나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이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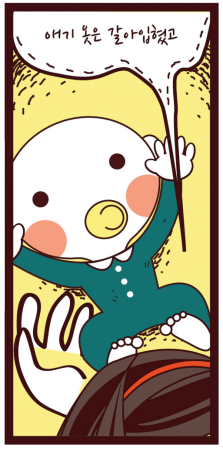
잠실 롯데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아기엄마에요. 아기 이유식 재료는 신선해야 하고 조금씩 사야하기 때문에 마트를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쉬는 날인 줄 모르고 아기랑 마트에 갔다가 그냥 되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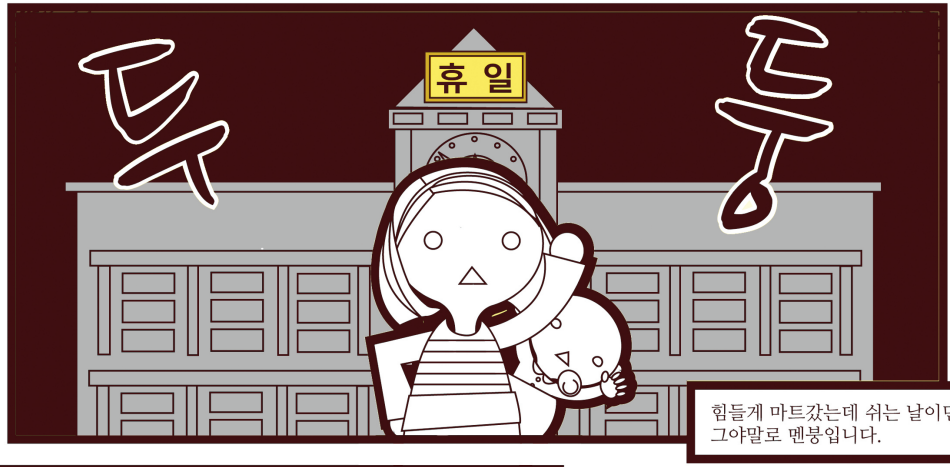
아기 데리고 나가는 게 혼자 마트를 가는 것보다 매우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ㅡㅡ. 애기 옷 입혀 놓고 기저귀 가방을 챙깁니다. 기저귀, 물병, 간식, 물티슈, 손수건 등등 가방에 넣어 놓고 애기 안으려고 보면 물을 엎어 옷을 버려 놓죠. 다시 옷 갈아입히고, 애기 업고, 버스타고 마트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그야말로 멘붕입니다. @.@

사연2 '애기' 데리고 마트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나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이*원)

삽화 by 서혜지





힘들게 마트갔는데 쉬는 날이면 그야말로 멘붕입니다.

아기 이유식 재료는 신선해야 하고 조금씩 사야하기 때문에 마트를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쉬는 날인 줄 모르고 아기랑 마트에 갔다 그냥 되돌아온 적이 몇 번 있어요.

옷 입히랴 기저귀 챙기랴 아기 데리고 나가는 게 혼자 마트가는 것보다 매우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사연 3

나의 일요일 식사를 라면으로 때우며….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정재순**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를 좋아하고 취미생활로 즐기는 23살 남학생입니다. 주로 시간이 넉넉한 주말에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한식보다 외국 스타일의 음식을 좋아하고 모험심이 강해, 항상 좀 더 색다른 향신료나 식재료에 도전해 봅니다.

불과 1~2년 전만해도 바질이나 파슬리, 월계수 등 다양한 향신료들은 대형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식생활 변화에 맞춰 큰 마트들은 다양한 파스타들과 소스, 치즈들, 수입산 살라미, 햄들을 구비해 놓고, 랍스타, 연어들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형마트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문 닫는 날이라는 것을 깜박하고 마트까지 갔다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라면으로 때우며 일주일 동안 기다려온 나의 화려한 일요일 식사를 그렇게 라면 국물에 실어 보냅니다.

자취생의 화려한 주말 식사가 미리 토요일에 장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날아가 버리면, 참 씁쓸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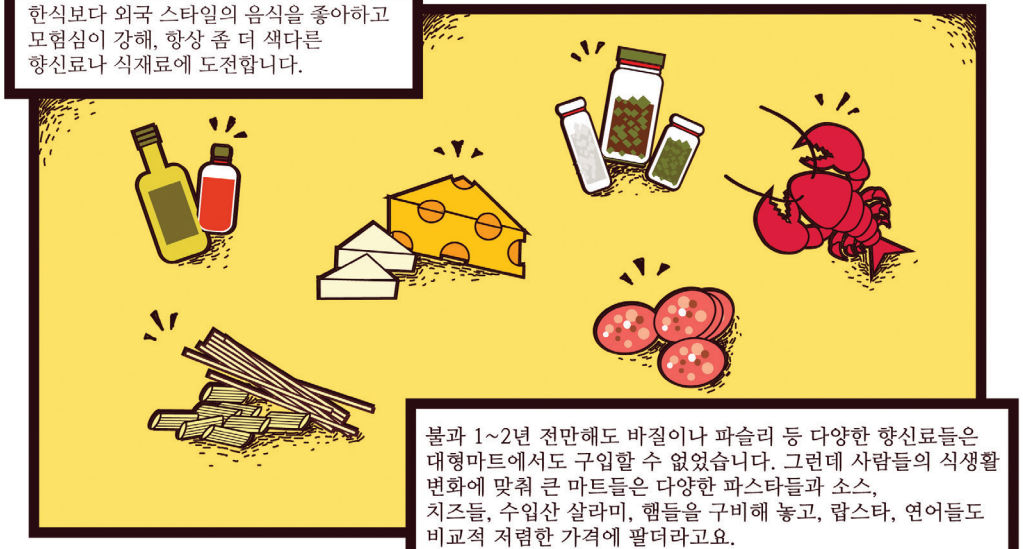
사연3 나의 '일요일 식사'를 라면으로 때우며….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정*순)

삽화 by 서혜지

취미생활로 요리를 즐기는
저는 주로 시간이 넉넉한 주말에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한식보다 외국 스타일의 음식을 좋아하고
모험심이 강해, 항상 좀 더 색다른
향신료나 식재료에 도전합니다.



불과 1~2년 전만해도 바질이나 파슬리 등 다양한 향신료들은
대형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식생활
변화에 맞춰 큰 마트들은 다양한 파스타들과 소스,
치즈들, 수입산 살라미, 햄들을 구비해 놓고, 랍스타, 연어들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형마트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문 닫는 날이라는 것을 깜박하고
마트까지 갔다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라면으로 때우며
일주일 동안 기다려온 화려한 일요일 식사를
그렇게 라면 국물에 실어 보냈습니다.

사연 4

이사한 날 마트가 문을 닫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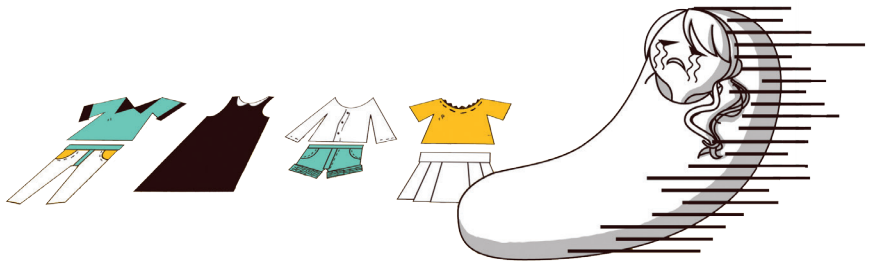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박선례**

태어나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에 입주하던 날이었습니다. 2년 동안 비어있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묵은 먼지가 장난 아니었지만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생각에 쓸고, 닦고, 청소하는 상상조차 즐겁기만 했습니다.

일단 마트로 향했습니다. 청소기, 고무장갑, 세제, 빨래걸이, 이불, 베게 등등. 새집으로 이사한다고 오래된 것들은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살 게 참 많았습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 산 물건들로 집안 곳곳을 배치할 생각에 마냥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마트로 향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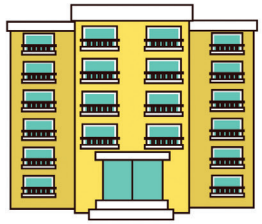
그런데 띠로리!! 마트가… 쉬는 날이랍니다. 옆 동네도, 그 옆 동네도 문을 연 마트는 없었습니다. 아, 망했습니다.

청소는 고생 좀 더 하더라도 어떻게든 되겠지만 빨래들과 잠자리가 큰 문제였지요. 결국 방바닥은 온통 빨래걸이가 되었고, 캠핑 때 쓰던 침낭으로 일주일을 버텼답니다.



사연4 '이사한 날' 마트가 문을 닫으면….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박*례)



삽화 by 서혜지

사연 5

30분이면 끝날 일이…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박＊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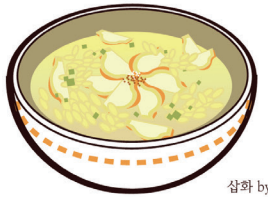
저는 일요일 밤 10시 갑자기 전복죽이 먹고 싶어서, 지하철 타면 한 정거장인 이마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기껏 간 이마트가 휴점이라 주변에 전복 파는 곳을 찾았는데 농협 하나로마트 뿐이더군요.

하나로마트까지 힘들 게 걸어가는 수고를 하고, 전복을 사려는데 @.@ 이마트는 3~4개에 만 원 정도 하는 전복을 하나에 사천 원씩 팔고 있었습니다. 전복죽이 너무 먹고 싶은 마음에, 비싸도 구입할 수밖에 없었죠. 이마트가 열려 있었다면 더 싸게 전복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또 적절한 교통수단이 없어, 하나로마트에서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했습니다. 30분 안에 끝날 일이 한 시간으로 늘어났고, 돈도 배로 들었습니다. 마트가 문을 닫아서 짜증났단 경험 중 최악이었어요.

사연5 '30분' 이면 끝날 일이….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박*현)



삽화 by 서혜지

사연 6

애기 스틱분유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에서 안 팔아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이유미**

제 아이는 모유를 먹어서 그런지 분유를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분유가 필요할 때가 있어 분유를 늘 준비해 두는데, 분유는 유통기한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늘 남은 분유를 버려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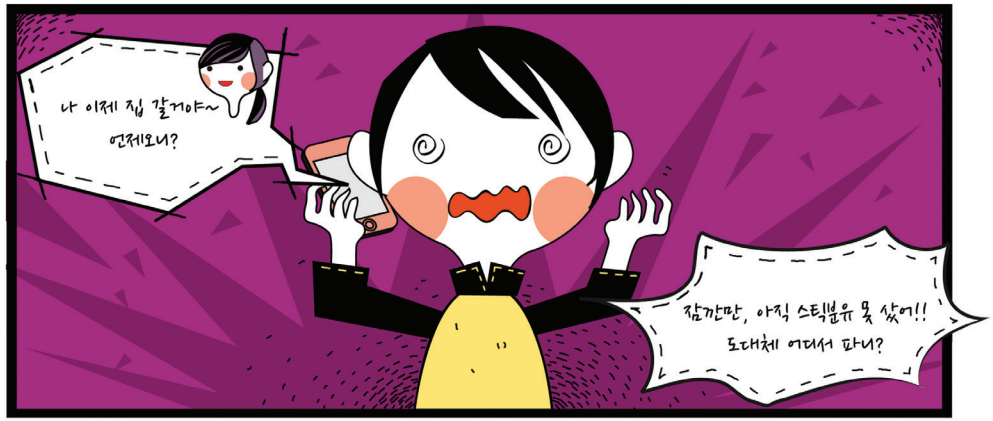
이런 얘기를 하자 애기 둘을 둔 친구가 100ml씩 포장된 스틱 분유가 있다고 알려 주더군요. 그길로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통 분유만 팔았습니다. 근처 SSM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스틱 분유처럼 애기 먹거리와 생필품은 대형마트에서만 파는 것이 많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에서는 팔지 않는 물건도 있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솔직히 애기 엄마 입장에서 좀 곤란합니다ㅜㅜ

사연6 '애기 스틱분유'는 시장, 동네 슈퍼에서 안 팔아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미)

삽화 by 서혜지



스틱 분유처럼 애기 먹거리와 생필품은 대형마트에서만 파는 것이 많습니다. 시장, 동네 슈퍼에서는 팔지 않는 물건도 있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솔직히 애기 엄마 입장에서 좀 곤란합니다ㅜㅜ

사연 7

스승의 날 선물을 못 샀어요 ㅜㅜ

경북 상주시 왕산로 **김*환**

저는 경북 상주시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있었던 사연 보내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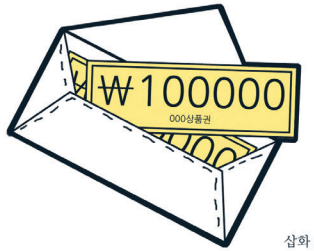
스승의 날을 맞아 원생들끼리 모여, 뭘 선물하면 좋을지 논의했습니다. 만년필, 와인, 화과자, 넥타이, 홍삼, 과일 등등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교수님들의 취향, 선물 무게 등등을 고려해 상품권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로 상품권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스승의 날 전날인 14일에 퇴근하고 이마트에 들렀습니다. 쉬는 날 일거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갔는데 두둥…. 마침 그날이 이마트가 영업규제로 쉬는 날이었습니다. 15일은 예비군훈련이라 낮에는 볼 일을 볼 수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서둘러 같이 수업 받는 분께 연락 드려 선물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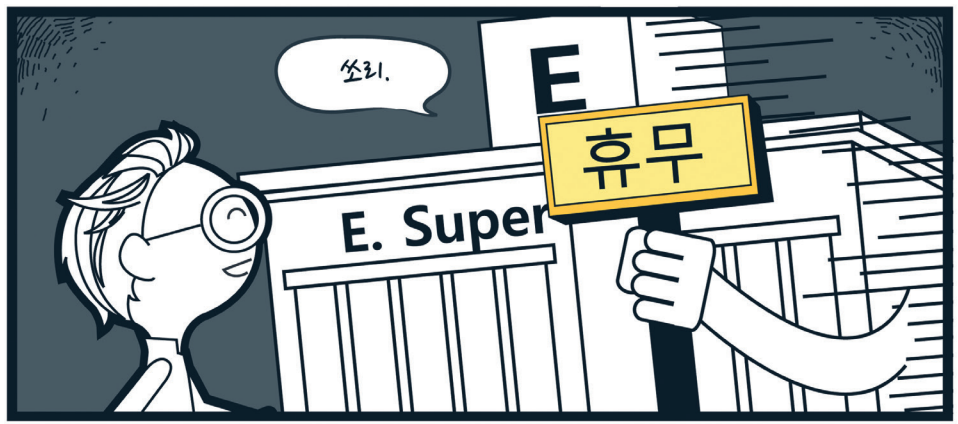
제가 사는 상주는 장이 2일, 7일 날짜로 서는데 장날에 맞춰 시장에 찾아가는 것처럼 마트도 가야 되는 것인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불편합니다. ㅜ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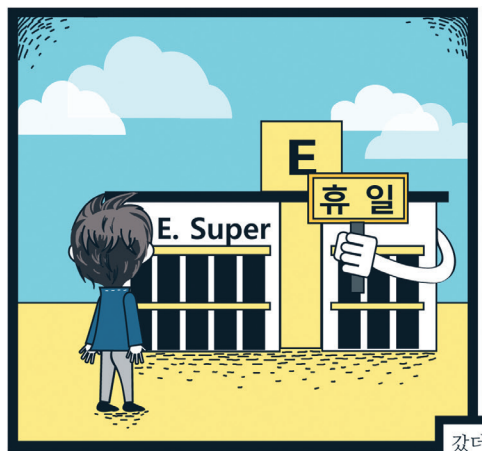
사이린구 스승의날 '선물'을….

(경북 상주시 왕산로 김*환)



삽화 by 서혜지





사연 8

쌍둥이 아빠의 고충

서울시 도봉구 창동 **윤주진**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된 쌍둥이 아빠입니다.

쌍둥이 키우기, 단지 두 명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게 당연합니다. 동시에 울고, 동시에 잠투정하고, 또 동시에 먹고…. 두 명이 달라붙어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죠.

그 중에서도 쌍둥이 키우기의 최고 어려운 점은 바로 외출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크고 무거운 쌍둥이 유모차를 끌어야 하고, 와이프와 저 둘 다 아이를 매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짐도 많습니다. 쌍둥이 유모차가 지나가기 어려운 통로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기도 하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쌍둥이 유모차는 제대로 민폐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는 아무래도 크고 넓은 마트가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일반 도로에 쌍둥이 유모차 끌고 다니는 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와이프 혼자서 쌍둥이를 데리고 나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저와 함께 장을 보러 가야하고, 그나마도 토요일에 제가 일이 있으면 일요일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트가 문을 닫는 날이면 정말 당황스럽고 불편하죠. 같이 장을 보러 갈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와이프에게는 몇 안 되는 외출 기회이기도 하구요.

사연8 '쌍둥이' 아빠의 고충….

(서울시 도봉구 창동 윤주진)

삽화 by 서혜지

사연 9

저의 즐거운 아침식사 돌려주세요~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김현정**

저는 구로디지털단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에요. 집도 회사 근처라 마을버스로 두 정거장 만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어요. 룰루랄라~♬

그래서 매일 아침 8시쯤 집에서 나와 마을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점에서 매일 아침 먹을 빵이랑 우유 그리고 그날 먹을 간식을 사가지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때때로 마트에서 저렴하게 파는 과일과 과자를 사서 직장 동료들한테 나눠주며 인심도 쓰고, 아침 인사도 건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죠. 마트에선 10송이 달린 바나나를 2,700원이면 살 수 있고, 과자도 1+1 행사상품 사면 적은 금액으로도 부서 직원이 모두 나누어 먹을 만큼 많이 살 수 있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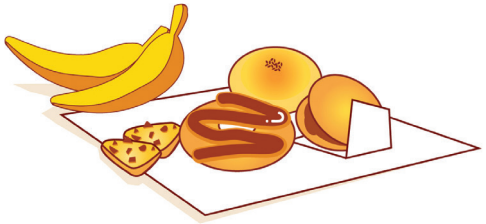
근데 어느 날부터 출근시간에 마트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영업시간이 오전 8시에서 10시로 변경되었대요.

'……!!!!!……흑흑…….ㅠㅠ……::'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영업규제라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재래시장에 들려서 출근을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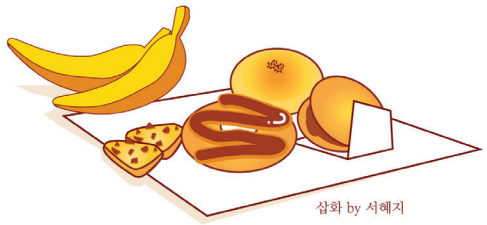
그리고 같은 물건도 마트에서 사야 저렴하답니다. 골목에서 장사하시는 분만 서민이 아니라 저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봉급생활자 이거든요!!! 아무튼 마트 오전 영업시간이 10시로 늦춰진 이후로 저의 아침 값 부담률은 두 배로 뛰었고, 날마다 먹었던 과일 간식은 이제 못 먹은 지 오래 되었어요.

제발 오전 영업시간 규제를 철폐해서 저에게 즐거운 아침식사와 과일 간식시간을 돌려주세요!!!



사연9 저의 즐거운 '아침식사' 돌려주세요~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김*정)



삽화 by 서혜지

매일 아침 8시쯤 집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홈+익스프레스 점에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영업규제로

오픈시간변경
08:00 ▶ 10:00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연 10

Oh My God! "홈플러스가 망했나?"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 Dan Bielefeld

저는 한 달에 한번 홈플러스 여행을 떠납니다. 버스를 두 번,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고 가야하고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행이라 부릅니다. ^^

그런데 작년에 홈플러스를 방문했다, 문이 닫힐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말 오후에, 가장 손님들로 붐빌 시간에 문을 닫았니! @.@'

저는 맨 처음에 홈플러스가 망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형마트 영업규제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강제로 쉬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을 전통시장으로 가게하기 위해….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큰 마켓들과 같은 상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40분이 걸려 홈플러스에 쇼핑하러 가는 이유는 홈플러스에서 괜찮은 씨리얼과 냉동 블루베리를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에서는 팔지 않는 것들이지요. 저는 그날 제게 필요한 씨리얼과 냉동 블루베리를 다른 어느 마켓에서도 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가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도 제 경우에는 규제가 완전 실패했습니다. 전통 시장에서 쇼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전통시장에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전통시장 구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만큼의 다양한 상품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를 대체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처럼, 대형마트에서도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거하면 그것은 단순히 소비자의 피해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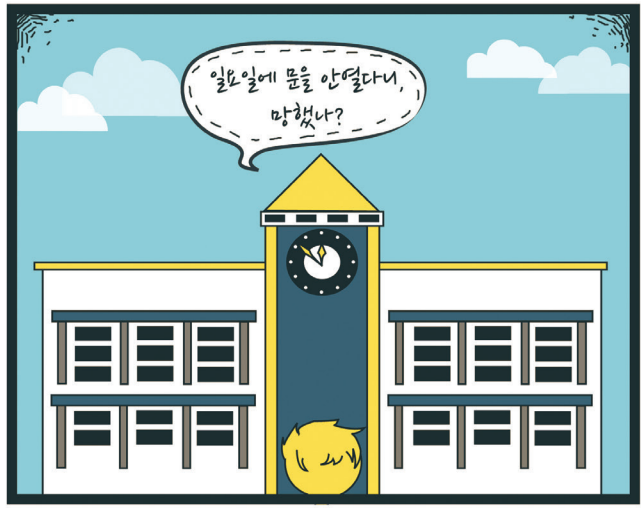
어떤 산업, 어떤 산업에 종사는 근로자, 어떤 소비자들을 국가가 선택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규제와 소비자, 경영자,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가 되돌려지길 바랍니다.

사연10 Oh My God! "홈플러*가 망했나?"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 Dan Bielefeld)

삽화 by 서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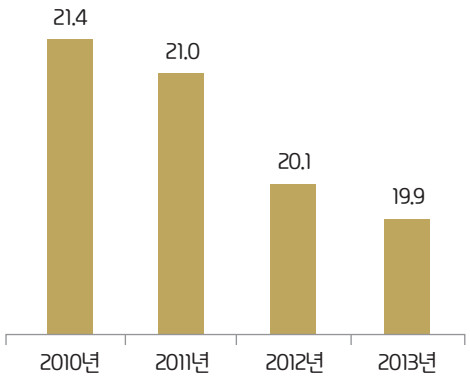


II 통계로 보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01. 전통시장 매출 5년 째 '뚝'
02.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협력업체 매출 감소
03. 성장 멈춘 대형마트
04.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05. 대형마트와 소비자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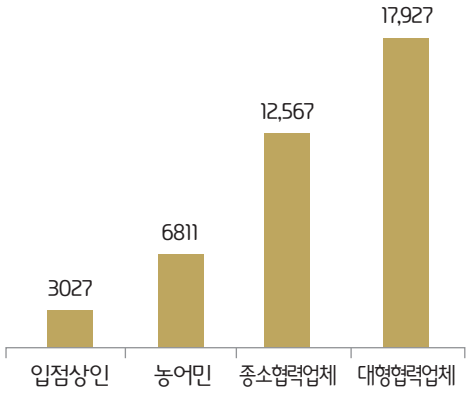
01 전통시장 매출 5년 째 '뚝'

전통시장 매출 (단위 : 조원)



(자료 :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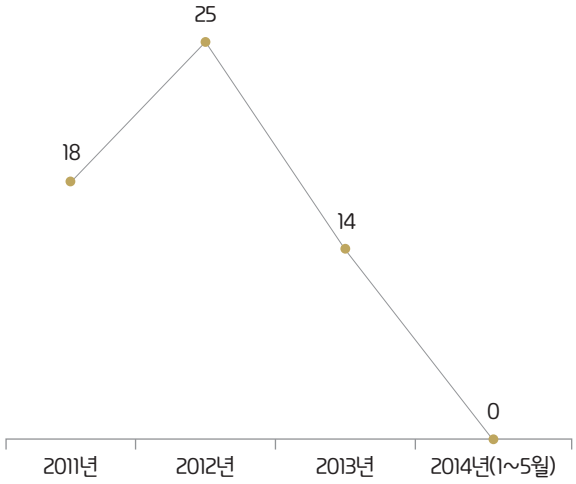
02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협력업체 매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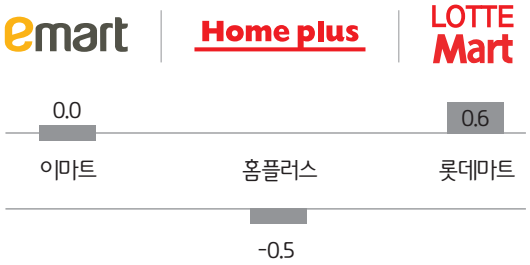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3년 4월)

03 성장 멈춘 대형마트

신규출점수(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합계)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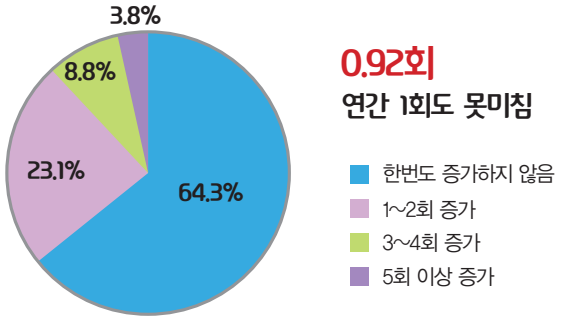


(출처 : 한국체인스토어 협회)

04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년 11월 발표, 소비자 800명 대상 조사)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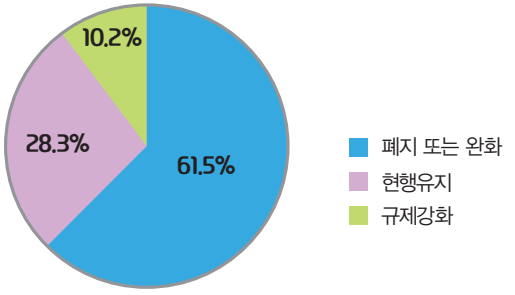


0.92회

연간 1회도 못미침

대형마트 의무휴업에도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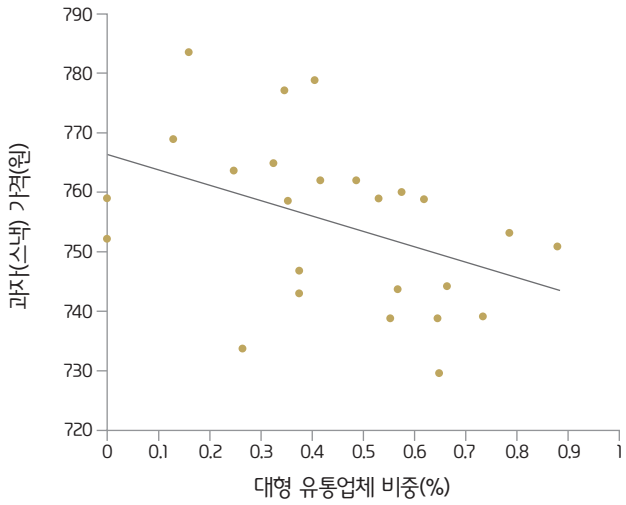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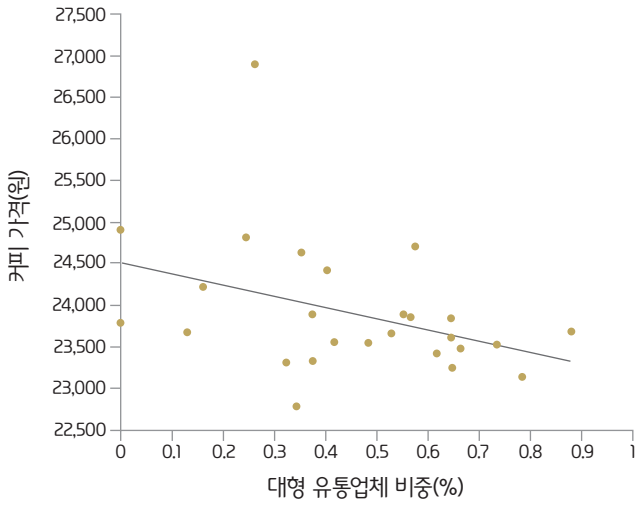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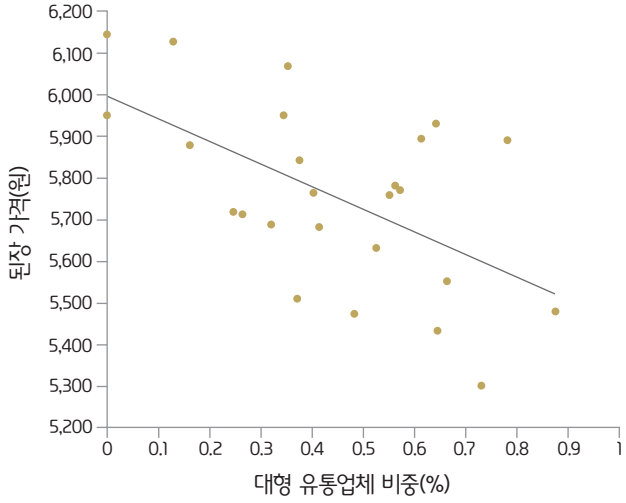
05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소비자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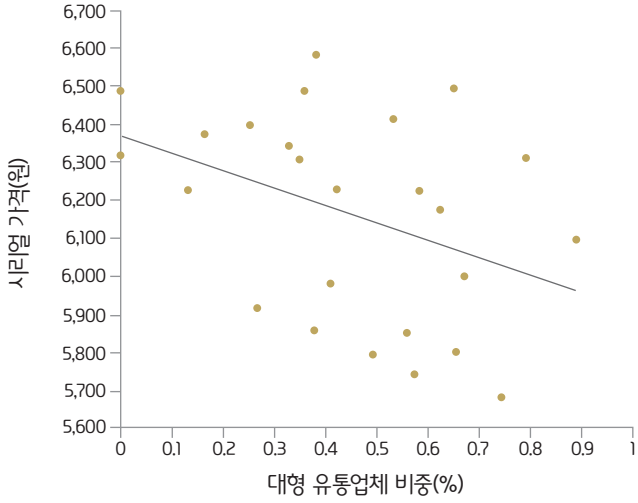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2014년 12월 '대형유통업체 대항력과 소비자가격 : 서울시의 경우')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31개 생필품 중 24개 품목이 지역구 내 대형유통업체 비중이 높을수록 소비자가격이 낮은 경향을 보임.









III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01. 프랑스, 109년 만에 일요일 영업 허용
02. 갈수록 강해지는 대한민국 영업규제

01 프랑스, 109년 만에 일요일 영업 허용

2014년, 지난 100년간 금지했던 일요일 영업 허용

2000년, 30년간 유지했던 대형마트 영업 규제 폐지

대형마트 영업규제 없음

※ 미국 워싱턴, 시카고 등 일부 시의회에서 대형마트 신규출점 제한을 시도했으나, 소비자 선택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02 갈수록 강해지는 대한민국 영업규제

2012년 2월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행

오전 0시~오전 8시까지 영업금지, 월 1~2회 의무휴업

2013년 1월 대형마트 영업제한 확대 법안 통과

오전 0시~오전 10시까지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

2013년 9월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형마트 의무휴업 월 4회 법안 발의

2013년 12월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 법안 발의

2014년 3월 서울시 조례개정

서울시 자치구 대형마트 같은 날 의무휴업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야채	콩, 콩나물, 오이, 애호박,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상추, 시금치, 배추, 양배추, 무, 열무, 알타리무
신선·조리식품	두부, 계란, 어묵, 떡, 떡볶이, 순대, 조리빵, 치킨, 피자
수산물	갈치, 꽁치, 고등어, 오징어(생물), 낙지, 생태, 조개
정육	사골, 우족, 도가니, 스지, 소머리고기
건어물	오징어, 북어, 대구포, 쥐치포, 생김, 미역, 다시마, 멸치
기호식품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기타	종량제 봉투

서울시는 2013년 4월, 51개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을 내놓았다 소비자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발행인 김진국
발행일 2014년 11월 26일
발행처 컨슈머워치
주 소 150-87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2 성우빌딩 805호
TEL. 070-4134-9600
일러스트 서혜지
홈페이지 www.consumerwatch.kr
디자인 기획·제작 늘품플러스 (070-7090-1177)